기본을 다했더니 뿌리 깊은 나무가 되다

인천차앤박피부과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붉은 기가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재미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헬시 플레저 알고리즘 속에서 어마 무시한 안내가 진행된다. 다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은 진피층까지 움푹 패인 흉터는 이제 작별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일까.

임상 노하우에 따른 순도 100% 확신 치료

최근 레이저 트렌드는 아프지 않고 편하게 받는 치료다. 해당 치료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원가에서도 이 트렌드에 전념한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여드름 흉터의 경우 진피층까지 열에너지가 도달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좀 아프고 시술 후 회복의 척도인 붉은 기가 2~3일 남을 수 있다. 물론 이 불편함을 참아 낸다면 치료 효과는 확실하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고 있다. 김연정 대표 원장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 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피부 과학의 발전으로) 진피층이 빠르게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스터도 많아졌지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임상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책임감 있게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대만족입니다. " 실제로 효과가 확실한 병원으로 알려졌다.

3DEEP 고주파 프로그램, 리프팅 치료로 눈길

이처럼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을 고집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연령대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리프팅 받을 수 있는 3DEEP 고주파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입체 고주파 장비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데 얼굴 리프팅은 물론 주름개선, 모공축소 등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 이지선 대표 원장은 “리프팅의 경우 눈에 보이는 주름, 볼륨감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속부터 개선되어야 효과가 더욱 증진된다는 게 포인트에요. 여기에 고주파는 피부에 발생하는 자극이 기존 리프팅 시술보다 적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리프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 버린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스마트하고, 환자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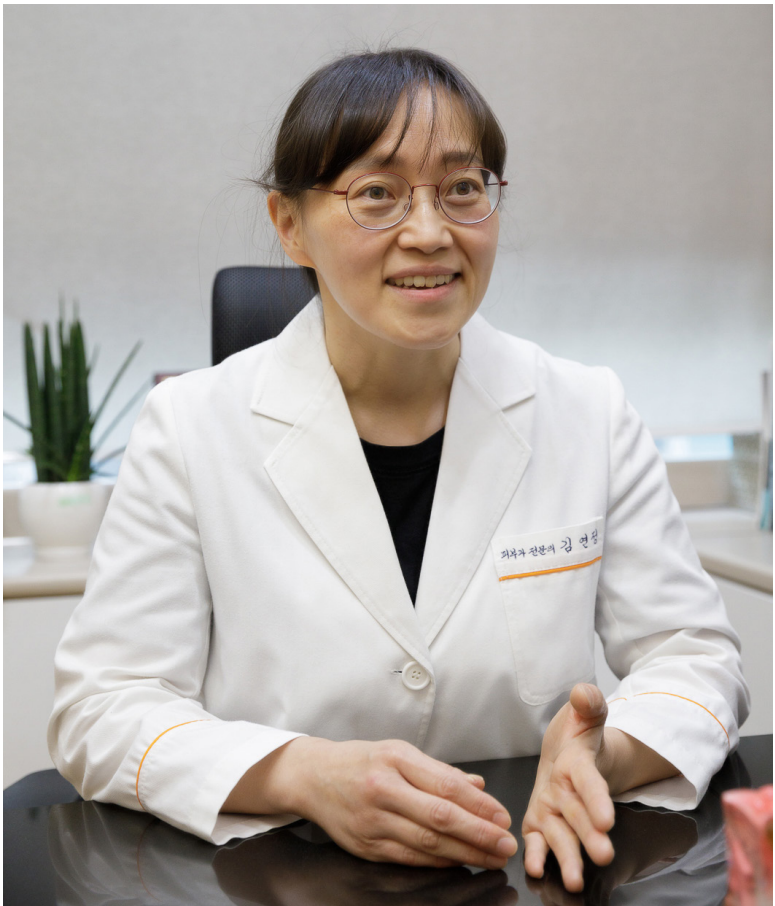
스마트한 환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환자는 더욱 스마트해졌고, 질환은 그만큼 진화했다. 피부를 위협하는 외부환경이 가혹해진 탓도 있지만 피부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진 것 같다고. 여드름의 경우도 청소년부터 2030 정도 까지 성인 여드름으로 분류 되었고, 10대 이하나 40대는 정말 드물게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아 여드름과 더불어 40대도 여드름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

“아무래도 마스크 일상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40대가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저 뾰루지라고 넘겼다면 이젠 예사로 보지 않는 것이죠. 평균 수명도 늘었고, 흠없는 피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야무지게 치료하고, 피부 건강을 아주 잘 지켜내죠.” 질환의 진화만큼 환자가 더욱 스마트해지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매우 슬기로운 대처인 것이다.

이사 간 환자가 찾아 오는 병원, 마음이 통하다

한편으로는 개원이래,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사를 갔던 환자들도 치료 시기가 되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원한다. 기존 환자가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일은 매번 감회가 남다르다. 기본에 충실했던 마음이 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팬더믹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모두에게 건강한 일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잊지 않았다.

인천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기본’이었다. 환자의 기본을 살폈고, 그에 충실하게 치료했다. 그랬더니 어려운 시기 잊지 않고 피부과를 방문해 주는 환자들이 있었다. 경쟁이 과다한 의료환경 속에서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임직원들의 노고 역시 짐작할 수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 안 탄다’는 속담처럼 기본이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 전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임인년 새해, 인천 차앤박피부과 방문이 즐거운 이유다.